

2014. 3. 7. (금) 오후 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민생경제팀 강길성 팀장 (02-731-2420), 정순길 사무관 (2423)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2014년 3월 7일 (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본 정책토론회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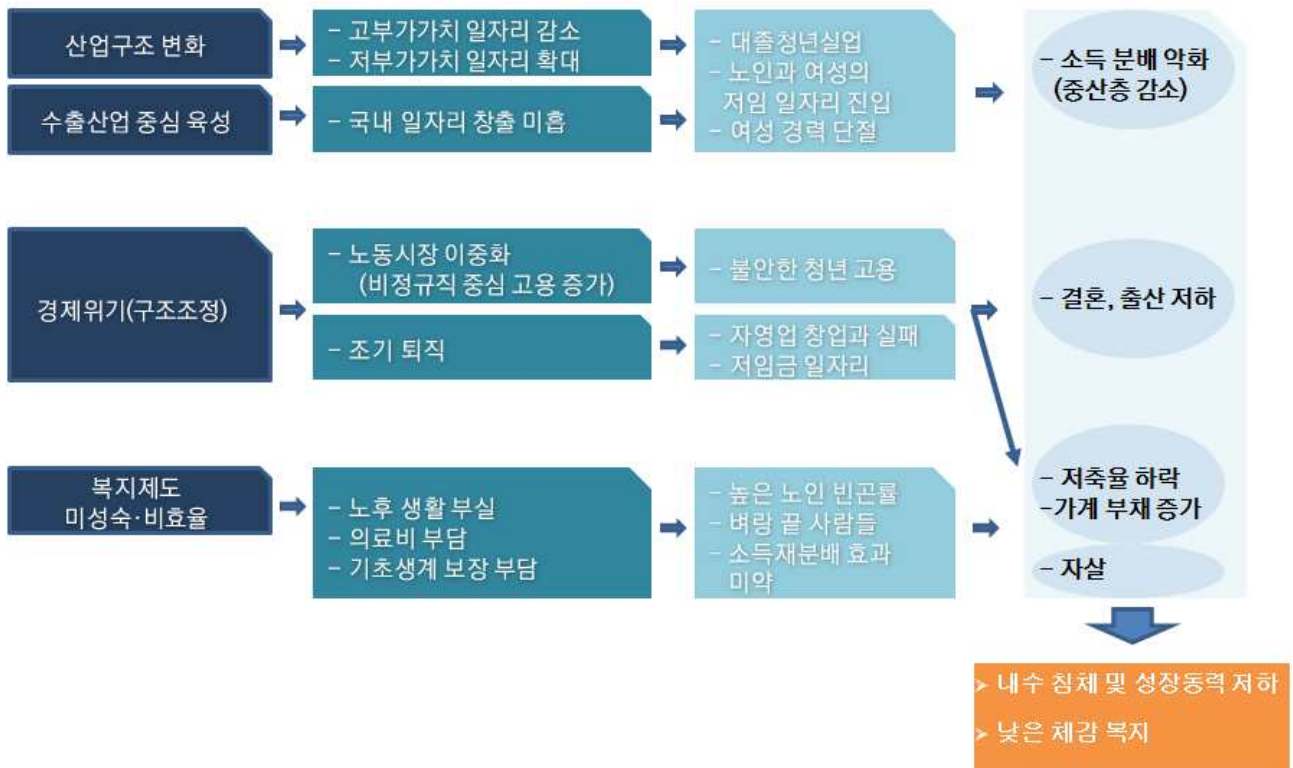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이슈’라는 주제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가 있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형 복지 국가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안상훈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분과위원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전문가 토론은 외부전문가 4인과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6인 등 총 10인의 토론자가 한국의 복지실태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고 삶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주제발표 요약 및 토론회 개요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현재 복지지출 예산은 국가 총지출의 1/3 수준까지 증대되었음
 - 그러나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평균 57% 수준의 고용률, 실질성장률 평균 9%
 - 2000년~2013년: 평균 59% 수준의 고용률, 실질성장률 평균 4.2%
- 세전소득 기준 중산층의 인구비중 또한 1990년 73.7%에서 2012년 65.5%로 8.2%p 감소
 - 저소득층 비중(상대빈곤율): 같은기간 6.6%p 증가
-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2013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 격차를 비교한 결과 연간 경상소득은 4,499만원 차이를 보임
(저소득가구: 1,204만원, 일반가구: 5,703만원)
- 또한 저소득가구의 임금소득이 일반가구에 비해 3,409만원 낮게 나타남
(저소득가구: 360만원, 일반가구: 3,769만원)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30년 17.9%, 206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공사회복지지출중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80.2%가 사회보험분야지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의 과제는 다음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국방·경제·사회안보의 균형과 조화 필요
 - 외환보유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적 관리 → 경제안보 강화
 - 생애주기형 복지제도 확충,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 → 사회안보 강화

<그림>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함

- 한국의 복지레짐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레짐별 군집분석을 한 결과,
 - 현재 한국은 이상치(outlier)로서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았음
 - 한국은 현재 남부유럽적 특성(낮은 사회투자, 질 낮은 거버넌스, 낮은 고용성과, 낮은 지속가능성)과 자유주의 국가의 특성(재정적 안정성, 낮은 사회보장, 낮은 사회투자)을 갖고 있음

- 「Yee&Chang」 모델을 이용한 사회의 질 분석에서도,
 - 한국은 교육과 일자리제공 능력은 OECD 29개 국가중 18위로 그나마 양호하나 사회적 응집성 23위, 복지역량이나 시민정치참여에서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그리스와 한국의 여러 특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특성에서 벗어나 삶의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을 제안함
 - 맞춤형 고용·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일자리 창출 → 소득 증가 → 복지 재원 절감
 - 고용증가 → 세수 확대 → 소득 보장, 보육, 의료 등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
 - 성장과 고용 → 복지의 선순환 고리

□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다음의 세부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함

- 정책과제 1: 경제와 선순환되는 복지급여(지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 고령계층에 집중되는 복지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노동시장과 가족정책 영역 등 신사회적위험에 대한 급여 보장성 강화가 필요
 - 고용증가 → 세수 확대 → 소득 보장, 보육, 의료 등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
- 정책과제 2: 보건의료 정책 수단의 다원화
 -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재구성 필요
 - 질병치료 중심에서 생애 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 변경
 - 이에 따른 U-health, 원격 진료의 중요성 증대
 - 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보험자 체계에서 공급 Network의 다각화
 - 건강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방식을 수정 도입
- 정책과제 3: 사회적 경제의 역량 강화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참여에 의한 신뢰형성, 차별과 배제의 극복 등 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
 -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로 인해 서로 협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자본 축적
- 정책과제 4: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대응한 부담 수준 조정
 - 사회서비스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지만 고용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 재정적자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사례(90년 초 북구국가, 80년~90년 초 프랑스, 2000년대 후반 그리스, 80년대 초 캐나다, 2000년대 후반 미국 등)를 통해 재정적자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료인상, 세수확충 등의 수단이 우선되어야 함.

○ 정책과제 5: 다층적 생활보장망 구축

- 1차 보장망: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정 정도의 현금이전
- 2차 보장망: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한 소득보장으로 사회보험형 공적 현금급여로 구성
- 3차 보장망: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해 민영화 혹은 시장화된 소득보장(퇴직연금, 민간 연금보험) 등으로 구성
- 4차 보장망: 소득 취약계층의 잔여욕구들에 대해 생활영역별로 개별 급여화 된 범주형 공공부조로 대응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내용을 확대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고용서비스를 결합하는 고용주도형 복지로의 전환 필요

○ 정책과제 6: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 융합적 사회서비스의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 비용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선

☐ 일 시: 2014. 3. 7(금), 14:00~18: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후 원: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

[진행 방식] 각 세션별로 대표 발제자 1인 발제 및 토론 진행

- 2개의 대표발제 후 좌장 1인, 토론자 10인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진행

[토론회 진행]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병호
- 인사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정택
- 축 사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14:20~15:20 주제발표

좌 장: 서상목(인제대 석좌교수)

대표 발제 1: 한국의 복지 현황 및 이슈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대표 발제 2: 한국형 복지국가의 탐색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5:35 휴식

15:35~17:35 토론

<토론자>

(외부토론자)

신성식(중앙일보)

김수현(세종대 교수)

김연명(중앙대 교수)

윤희숙(KDI 연구위원)

(집필진)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 국민생활 실태와 사회보장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
4.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5.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
가야 할 표본인가?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6.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7.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서상목 인제대 석좌교수)

8.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9.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10.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1.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12.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과 경제의 선순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